

하루를 시작하며



부희식 칼럼니스트

어느날 고교 1학년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절도와 폭행을 주도해 소년원에 수감하게 됐다.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란 놈이라며 손가락질을 하니,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듯 눈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립에 다니는 아이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철창도 녹인다

면회를 가는 어느날 돈이 없어 궁리 끝에 돌아갈 때에는 좀 걷기로 하고, 노자 일부를 떼어 쫘쫘 얼어 있는 우유 한 병을 샀다. 그러나 어머니는 차가운 우유를 그냥 아들에게 마시게 할 수가 없었다. 면회 시간을 늦추고 얼어 있는 우유 한 병을 겨드랑이에 끼워서 체온으로 녹여 보려고 했다. 그날따라 날씨가 추워, 몸을 떨다가 아들을 면회하게 됐다.

정시험에 합격하고, 학력고사 320점 만점에 310점을 받아 명문대학에 입학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은 교도소의 철창을 녹이고, 운명을 바꾸고, 하늘도 움직이게 했다. 흔히 "어머니는 최초의 스승이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의 교실이다", "오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격언이 말해주듯이 위대한 사람 뒤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 김만중, 한석봉, 이윤곡의 어머니와 같이 모두가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를 키워냈다.

절, 친절, 창의성 교육 등을 익히고 전문직 이론 체계를 확립시키는데 일조해 1869개의 발명품을 남겼다. 아인슈타인은 대학 입학시험에 낙방해 재수 1년 동안 절망의 늪 속에서 방황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사랑과 정성, 눈물의 격려를 통해 용기를 북돋우며 다시 일어하게 했다. 훗날 그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원자폭탄'을 만들어 세계적인 과학자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오늘에 내가 있음은 어머니의 사랑, 정성, 눈물 덕분이라고 말한다. 아인슈타인은 어머니의 눈물을 분석해보니 강물이나 빗물처럼 평범한 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 속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숨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 위대한 힘은 후대로 살아갈 우리들의 몫인 듯 싶다. 오늘도 자녀 교육에 애쓰는 모든 어머니께 박수를 보낸다.

열린마당

"Bye 인감, Hi 서명"



양현주 제주시 한림읍 민원팀장

누구나 한번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구입 등 고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된다. 이는 여타의 다른 계약과 달리 고액이라 본인 확인 서류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이 필수서류중의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인데 인감증명서는 항상 신 분증과 함께 도장을 챙겨야 하고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기관 대출 등에도 인감 대신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이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예방에도 안전성이 있으며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했던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노동력 소비를 절약시켜 주는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를 선호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림읍은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중에 있다. '매주 수요일을 본인서명 체험의 날'로 지정 누구나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본인 서명 홍보 도우미'를 배치해 편리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이제는 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같은 실용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울리는 본인만의 멋진 서명을 이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 둘 접목시켜 보자.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수형인 명예회복 기여 공로에 감사 인사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 초청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이 추미에 전 법무부장관을 초청해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결정. 추 전 장관은 2020년 법무부장관 재직시절, 군법회의 수형인은 일괄적인 재심을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이바지. 추 전 장관은 17일 4·3평화공원 참배에 이어 오후 2시30분 4·3평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감사패 증정식과 간담회에 참석하며, 18일에는 북촌 너른송이기념관, 곤울동 잃어버린 마을, 옛 주공공장 터 등 4·3 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고대로그자

도전반는 제주특별자치도?

○... 모든 광역시도 권한을 서울·제주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법안에는 광역시도 명칭을 특별광역자치단체로 바꾸고, 외국학교 등 학교법인 설치 및 교육과정 허가 권한 등 인프라 전반에 관한 광역시도의 권한을 상향시키는 내용. 하 의원은 "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 부미현기자

돌봄축제 관계기관 노고 인사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제주돌봄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난데 대해 제주시는 16일 주간간부회의를 통해 서부소방서와 자치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 이날 안동우 시장은 이번 돌봄축제로 인해 문화예술인 등 일자리 창출과 공연기회 제공 등 돌봄축제가 갖는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며, 소임을 다해준 관계자들에 감사 인사. 이어 "향후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등 사업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흔들림 없이 진행해달라"고 강조. 이윤형기자

사설

3월 연일 확진자... '연쇄고리' 왜 끊지 못하나

제주지역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간 신규 확진자가 일별로 드문드문 발생하는 사례와 달리 3월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보름 연속 나오는 '진기록' 때문이다. 현 상황은 시기적으로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이 등교 수업 중인데다 나들이 시즌까지 겹쳐 또다른 코로나19 대유행의 '전주곡'으로까지 인식돼 도민사회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도 방역당국 집계결과 이달들어 지난 15일까지 보름동안 4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3월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한 결과로, 지역사회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나온 주 감염경로는 확진자의 가족 또는 (지인)접촉자로 알려져 추가 확산 우려를 낮게 본다는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판정받은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고, 기존 확진자의 미파악된 동선도 있을 수 있어 감염확산 우려는

여전히 제기된다. 3월 새학기에 들어서자마자 학교에서 나온 학생 확진자 속출도 큰 불안 요인중 하나다. 오는 19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학교가 10개 중·고교인 만큼 학교별 확산 우려는 남아있다. 시·군·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나들이객으로 붐비는 봄철이 특성까지도 감안해야 할 상황이다. 현 소규모 감염이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확산으로 변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쯤에서 신규 확진자 매일 발생의 연쇄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 도 방역당국이 다시 방역의 고삐를 바짝 다잡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변이 바이러스 격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확진자 역학조사 강화, 방역수칙 준수 재점검, 순조로운 백신접종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민들 역시 생활현장에서 방역지침 준수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 피해어민 지원해야

제주어민들의 어려움이 말이지 아니다. 장기간 한·일 어업협상이 표류하면서다. 문제는 한·일 어업협상 자체가 안되면서 제주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벌써 어업협상이 중단된지 5년째다. 이 때문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다 일본 당국에 나포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매년 7월(그해 7월-다음해 6월)에 맞춰 한·일 어업협상을 해왔다. 양국은 해마다 이같이 협의했으나 2015년 어기 종료 후 협상이 미뤄지면서 5년째 상호 조업이 중단된 상태다. 예전에 일본 EEZ로 조업을 나갔던 제주 연승어선은 140여척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어업협상 때 140여척을 70여척까지 감축 등을 요구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수년째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되면서 제주어민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일본 EEZ 해역에서 나포되는 불상사가 빚어지

고 있어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 어선이 일본 EEZ에서 갈치조업 중 나포된 사례는 2017년 1척, 2018년 3척, 2020년 1척 등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에도 서귀포선적 어선이 일본 EEZ에서 갈치를 잡던 중 나포돼 6000여만원의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제주어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일본 EEZ에서 조업을 못하면서 제주어민들은 목숨을 건 먼바다로 떠나고 있다. 제주에서 700km 이상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다 해양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일 어업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따라서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어민들에 대한 어업손실 보상금 등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 고 고승효(하사매마을금고 이사장) 어머니 제주양씨 창인(향년 83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15일 10시 00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1년 3월 18일(목요일) ▶발인일시: 2021년 3월 19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어음리 선영 아 들 고승효 며느리 허민숙 승희 김태정 승현 백지현 딸 고승신 사 위 김남용 명옥 백윤철 명진 김준범 손 고동규 대권 도환 도협 ※ 연락처 : 고승효 010-2690-2827 고승희 010-4785-2085 고승현 010-4575-4732

부 고 양일석(황운노조새마을금고 전무)·보현(기아모터스영도공업사 대표) 어머니 연주현씨 영식(향년 86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15일 18시 29분에 별세하셨습니다. ▶일 포: 2021년 3월 17일(수요일) ▶발인일시: 2021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에스중앙병원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해안가족묘지 아 들 양일석 며느리 현미옥 보현 김광자 딸 양수옥 사 위 조용안 정순희 이성훈 주희 김주하(故) 손 너 양윤실 손 서 이은애(손주) 윤희 외 손 조은아 윤제 조훈제 윤진 이창준 김철준 김선아 ※ 연락처 : 양일석 010-9663-7409 양보현 010-6693-6503 현미옥 010-2684-1840 김광자 010-9839-612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강보성(前 농림수산부 장관·국회의원·향년 92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17일 아 들 강기정 정석 정태 딸 강명심 사 위 허대범 강일신 오병돈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광산김공 관진(향년 9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17일 아 들 김정범 며느리 오복실 정윤미 김정선 딸 김순열 사 위 김대숙 미희 이수형 영희(별조) 순희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봉석(향년 7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17일 부 인 정병순 아 들 문장혁 며느리 최희경 딸 문경미 사 위 임민철 문윤희 강규광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극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 판매회사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